

신협, 온(ON)뱅크로 모바일금융 인기몰이

신협의 모바일전용 플랫폼 '온(ON)뱅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상호금융권 최초로 모바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고, 다양한 온라인 전용상품을 통해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비대면 가입을 통한 세테크 활용

온(ON)뱅크는 상호금융권 최초로 비대면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신협의 비과세 혜택을 직접 조합 창구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모바일만으로 누릴 수 있는 비과세 세테크를 활용하기 위해 월평균 4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 고려한 인터페이스

온(ON)뱅크는 패턴·지문·얼굴·간편 비밀번호로 가입은 물론 금융거래를 지원한다. 보안 매체 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며, SNS(연락처, 카카오톡) 이체는 100만원까지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간결한 디자인으로 체감 속도를 향상하고,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메뉴 이동이 가능한 음성뱅킹 서비스를 제공해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온(ON)뱅크 전용 상품 통한 다양한 혜택 제공

온(ON)뱅크에서는 신협 예금 평균 금리를 적용한 공통금리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용상품인 '유니온 정기적금, 정기예탁금, 자유적립적금'을 통해 비과세 혜택(단, 농특세 1.4%는 부담)을 누릴 수 있다.

또 예금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 추가이자와 함께 따로 보관하는 '드림박스 서비스' ▲ 예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 또는 재예치를 도와주는 '오토마타 서비스' ▲ 각종 모임의 회비관리를 도와주는 '온모임통장'이 유용하다.

생계형 긴급자금과 신규대출 수요자를 위해 모바일 신속 대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용상품인 '815 마이포켓 신용대출'은 최대 500만원까지, '815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상품을 제공한다. 방문이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3분 만에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협중앙회 전경

신협 공제상품 이용과 공제금 청구도 가능하다. 온(ON)뱅크를 통해 '신협여행자공제(국내·해외)를 가입하면 최저공제료 없이 최대 15% 할인되고, 신용(체크)카드 및 신협 즉시 출금 결제 등 간편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100만원 이하 소액 공제금 청구(입원·수술·통원·실손의료비)가 가능하고 모바일 전자서명을 통해 공제 청약을 완료할 수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온뱅크는 1천300만 이용자들의 금융 니즈를 집약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온뱅크를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전국 883개 신협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든든한 신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

더 스마트하게, 더 편리하게 신협 ON뱅크

